

골목골목 선대위 보도자료

“골목선대위, 전국 기초단체 100% 모두 찾아 경청 선거운동 펼쳤다”

▲ 서울에서 전국 기초단체 한 번씩만 다녀가도 총 이동거리는 93,800km, 지구 두 바퀴!

제21대 대선 선거일을 이틀 앞둔 6.1일,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이하 골목선대위) 추미애 총괄선대위원장은 “골목선대위가 강화도 접경지역에서부터 울릉도와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찾아 골목선거운동을 펼쳤다” 고 전했다.

골목선대위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펼치는 전형적인 선거운동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35명의 중진급 정치인들이 직접 전국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주당의 선거운동조직이다.

골목상황실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내란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의 의미를 생각해, 기존의 ‘말하는 선거운동’ 에서 벗어나 낮은 자세로 ‘국민 말씀을 듣는 선거운동’ 을 하겠다는 새로운 선거운동 전략을 선보인 것” 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5.12일,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시갑)과 수석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이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 성주, 문경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을 시작으로, 골목상황부실장인 박민규 의원(서울 관악구갑)이 5.31일 경북 울릉군을 찾기까지, 골목선대위가 찾지 않은 기초단체는 없다.

서울에서 전국 기초단체를 한 번씩만 다녀왔다고 해도 그 이동 거리는 총 93,800km에 달한다. 지구 한 바퀴가 40,075km라는 점을 고려하면, 35명의 골목선대위원이 움직인 거리를 모두 합하면 지구 2바퀴가 넘는 셈이다.

서울권역 골목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한국 정치 역사상 특정 정당이 전국 모든 지역을 찾아 선거운동을 펼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일 것” 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새로운 선거운동의 역사를 쓴 것” 이라고 평가했다.

골목선대위가 전 지역을 찾는 완벽한 전국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35명의 골목선대위원장 모두가 자신의 지역구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 곳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닌 덕분이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과 이연주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각각 서울과 대구경북권역, 경기남부와 울산경남권역 골목선대위원장으로 폭넓은 권역을 담당하며 장거리 이동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경기권역을 담당하는 박광은 위원장은 경기도 곳곳을 다 찾은 뒤에도 경북 청송, 영양, 영덕, 봉화까지 추가로 찾아 골목선거운동을 펼쳤고, 강원권역을 맡은 이상호 위원장도 강원도 기초단체를 모두 돌고 추가로 경북 울진까지 찾았다.

골목선거운동을 위해 울릉도까지 찾은 박민규 의원은 “대선 선거운동 역사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울릉도를 찾아 선거운동을 펼친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놀라워하셨다” 며, “골목선대위가 전국을 빠짐없이 찾아 국민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업의 종착역인 울릉도를 직접 찾을 수 있어 영광” 이라고 전했다.

골목선대위가 전국을 돌면서 경청한 국민목소리는 이미 수천 건에 달한다. 35명의 골목선대위원장들은 자신들이 경청한 소중한 국민목소리를 잊지 않고 선거 이후 국정과제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골목수첩을 들고 다니며 일일이 기록했다.

제주권역을 담당한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유세차에 올라타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현장에서 함께 뛰기도 하고, 몸을 낮춰 귀를 기울이는 선거운동에 많은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신 것 같다” 며, “수많은 국민이 전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빠짐없이 골목수첩에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고 전했다.

서울권역 골목선대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골목수첩을 들고 경청하며 받아 적는 것을 보신 많은 국민께서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면서 “골목선거운동이 정치를 하는 보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골목상황실에서는 현재까지 취합된 골목수첩만 이미 백여 권 이상으로, 선거일까지 훨씬 더 많은 골목수첩이 취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공식 선거일 전날인 6.2일(월) 12:30, 경기도 하남시 유세에서 그동안 골목선거운동을 통해 경청한 국민 목소리와 함께 취합된 골목수첩을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추 위원장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전국 모든 지역을 빠짐없이 찾아준 35명의 골목선대위원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고마움을 전하고, “지금까지 국민목소리를 경청하고 골목수첩에 기록하는 과정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취합된 국민목소리를 국정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실천해 나갈 지도 매우 중요한 과제” 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일 직전 날에 국민목소리와 골목수첩 전달식을 개최하는 것은 향후 국민목소리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 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차기 정부는 반드시 국민목소리를 만드는 정부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끝>

[붙임 1] 골목선대위 구성 현황

No.	직책	성명	No.	직책	성명
1	골목골목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추미애	19	경기남부/울산/경남권역 위원장	이연주
2	골목골목 선거대책수석부위원장	한정애	20	인천권역 위원장	김교홍
3	골목종합상황실장	김영진	21	인천권역 위원장	박남춘
4	골목상황기획실장	김원이	22	인천권역 위원장	박찬대
5	골목상황부실장	박민규	23	강원권역 위원장	우상호
6	골목상황부실장	전진숙	24	강원권역 위원장	이광재
7	서울권역 위원장	김민석	25	충청권역 위원장	이인영
8	서울권역 위원장	전현희	26	충청권역 위원장	박범계
9	서울권역 위원장	박홍근	27	전북권역 위원장	한준호
10	서울권역 위원장	박주민	28	광주/전남권역 위원장	박지원
11	서울/대구/경북권역 위원장	서영교	29	광주/전남권역 위원장	정청래
12	서울권역 위원장	홍익표	30	부산권역 위원장	김영춘
13	경기권역 위원장	김태년	31	부산권역 위원장	박재호
14	경기권역 위원장	박광온	32	울산/경남권역 위원장	민홍철
15	경기권역 위원장	유은혜	33	대구/경북권역 위원장	이재정
16	경기권역 위원장	조정식	34	대구/경북권역 수석부위원장	박은정
17	경기권역 위원장	정성호	35	제주권역 위원장	위성곤
18	경기북부/강원권역 위원장	김병주			

[붙임 2] 주요 활동 현장 사진





6.1(일), 경북 봉화상설시장에서 상인과 주민들께 인사 중인 박광온 위원장



5.31(토), 경북 울진에서 골목선거운동 활동 중인 우상호 위원장



5.30(금), 제주 서귀포에서 골목선거운동을 하는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5.28(수), 울산 태화시장을 찾아 골목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5.29(목) 부산 영도시장을 찾아 골목선거운동을 진행 중인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시정)



5.24(토), 경북 영천에서 유세 중인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골목상황실에 제출한 25권의 골목수첩, 영등포구민의 목소리